

조미대결사의
법칙적인 전통



평양출판사

조미대결사의

법칙적인 전통



주체105(2016). 4.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공화국이 지구를 뒤흔드는 첫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폭음으로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꼈다.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에 100% 의거한 이번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항시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핵억제력을 틀어쥘수 있게 되였다.

주체105(2016)년 2월 7일 공화국은 련이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다시한번 행성을 뒤흔들어놓았다.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의 성공으로 하여 공화국은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오른 불굴의 자주대국, 최강의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대국인 동시에 과학기술강국, 우주강국이라는것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공화국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련이은 민족사적대사변들을 맞이한 이 땅은 감격과 격정으로 설레이고 인민은 누구나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었다.

동시에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전률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를 합쳤다.

정녕 공화국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의 성공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고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파산을 선고한 장쾌한 폭음이였다.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덴겁을 한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함께 류례없이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남조선에서 극악무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3월 7일부터 벌려놓은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사상최대규모로서 여기에는 미제침략군 2만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7 000여명, 남조선괴뢰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핵항공모함타격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미제의 거의 모든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이 총투입되였다.

게다가 미제는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한다는것을 공개하고 그 무슨 《참수작전》과 《상륙작전》, 《평양점령》과 《내륙작전》 등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있다.

허나 그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

침략자들의 무모한 도발을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으로 맞받아치는것은 공화국의 불변의 대응방식이다.

만약 적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은 순식간에 불바다, 재더미로 변할것이며 미제의 핵전략자산들은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땅에 있든 다시는 재생할수 없는 파철더미로 나딩굴게 될것이다.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조선의 뒨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것을.







1.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2. 과학기술전당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청년대학생들과 학생소년들

3.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여 **김일성**광장에서 무도회를 펼친 평양시민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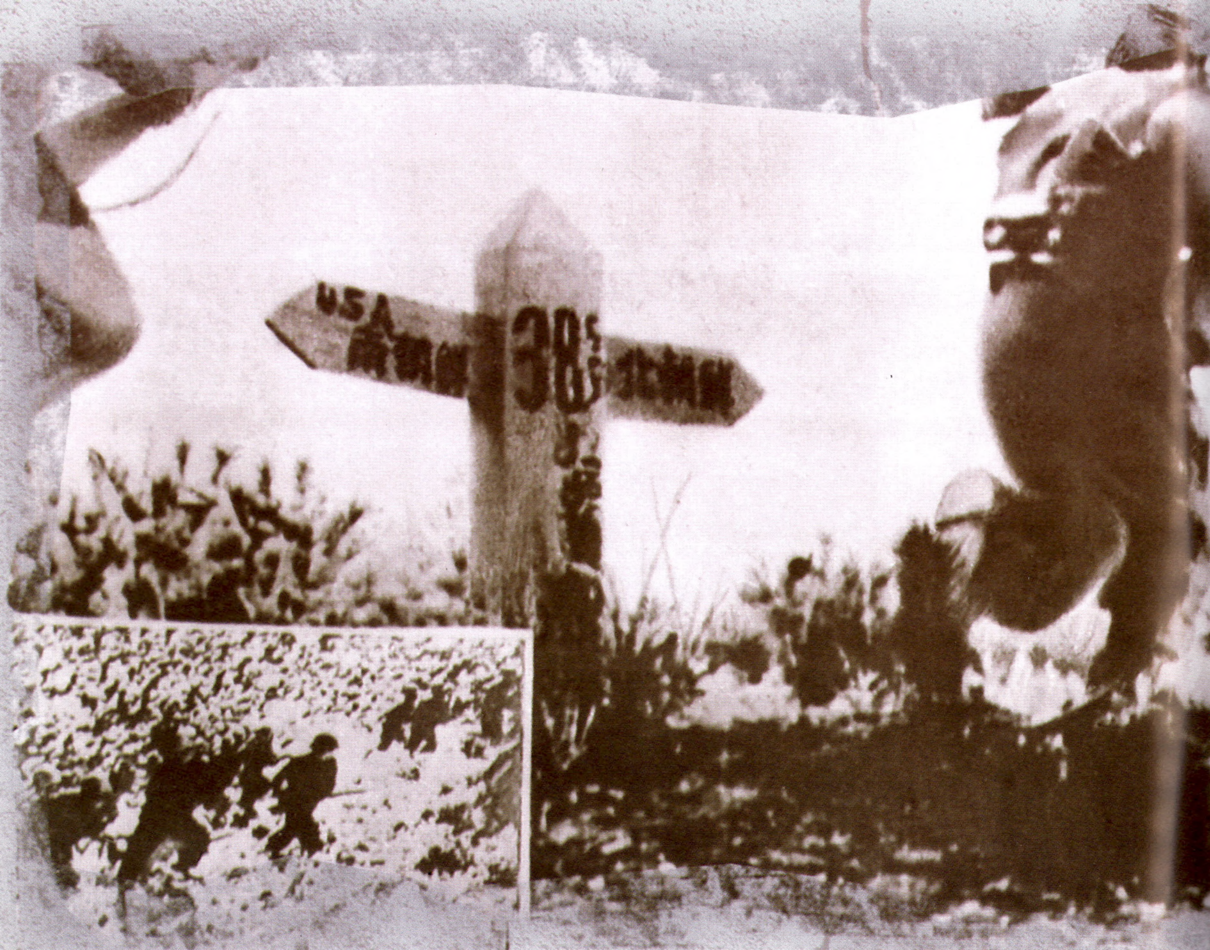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여긴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였다.

1950년에 이르러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미국은 선전포고도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조선전쟁발발당시 미제는 이렇게 오만하게 줴쳐대며 자못 위세를 돋구었다.

국가형성후 약 130여년동안에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110여차의 침략전쟁과 8 900여회의



군사적간섭행위를 감행한 미국, 이 기간 언제 한번 패한적이 없었으며 세계대전을 비롯한 모든 전투들에서 언제나 《전승》만을 자랑하며 강대성의 《신화》를 떠들어온 미국 대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

게다가 미국은 속전속결을 부르짖으며 조선전쟁에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군까지 포함하여 200여만명의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었다.

당시 이 전쟁에서 공화국의 승리를 확신한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허나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미국놈들은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



미제의 사촉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남조선괴뢰군들(왼쪽)과 군사분계선에서 조선침략전쟁모의를 벌리는 미국무장관 덜레스(오른쪽)



미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는 인민군용사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령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조국땅에 기여든 침략자무리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였다.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의 드센 공격에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찢기고 터지고 부러지고 만신창이 되였다.

오만하게 뽐내며 으시대던 위세는 간데 없고 처절하고 가련한 몰골로 미군은 세인앞에 나섰다.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에 만신창이 된 미군의 비참한 몰골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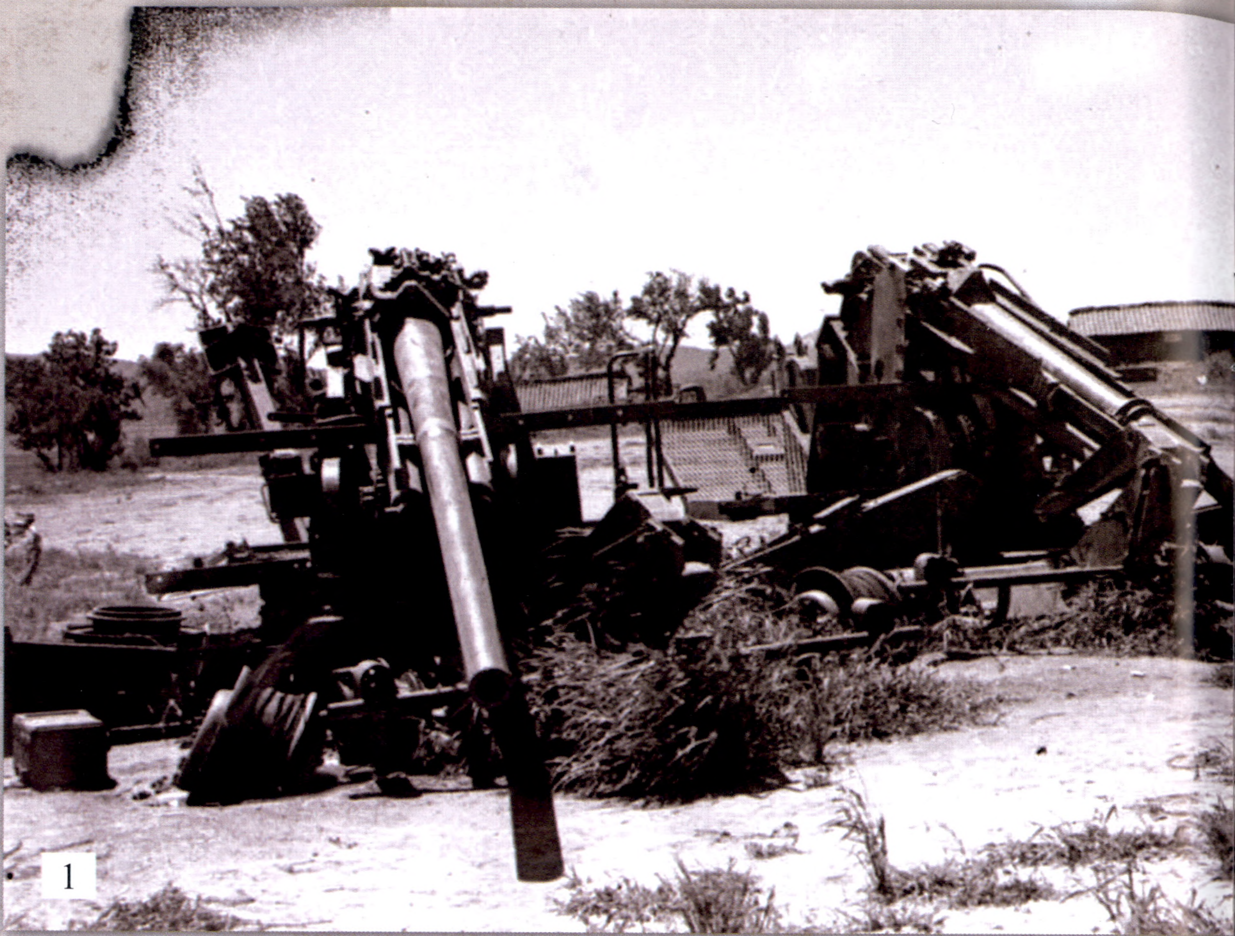
1. 조선전쟁에 끌려나왔다가 인민군대의 호된 타격에 겨우 목숨이나마 부지한 미군병사

2. 인민군대의 드센 공격에 즉사한 동료의 시체를 야산언덕에 파헤쳐진 구뎅이에 던져넣는 미군병사들

3. 제놈들의 시체를 짚차에 싣고 도주하는 미제침략군



날마다 죽음의 악몽속에서 헤매이던 미제침략군 병사가 나중에는 신경쇠약증에 걸려 떨고있다.



《최신예》라고 그처럼 자랑하던 땅크와 대포를 비롯한 미제의 무장장비들이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불세례에 파철더미로 나딩굴었다.

《바다의 요새》, 《떠다니는 섬》이라던 중순양함 《볼티모》호가 인민군해군의 자그마한 어뢰정에 의해 물귀신이 되였고 《하늘의 요새》라고 떠벌이던 전략폭격기 《B-29》들이 용맹한 인민군비행사들에 의해 맥없이 곤두박질쳐 이름없는 산과 들에 코를 들이박았다.

200억US$이상의 최신장비들을 조선전쟁에 련속 투입하였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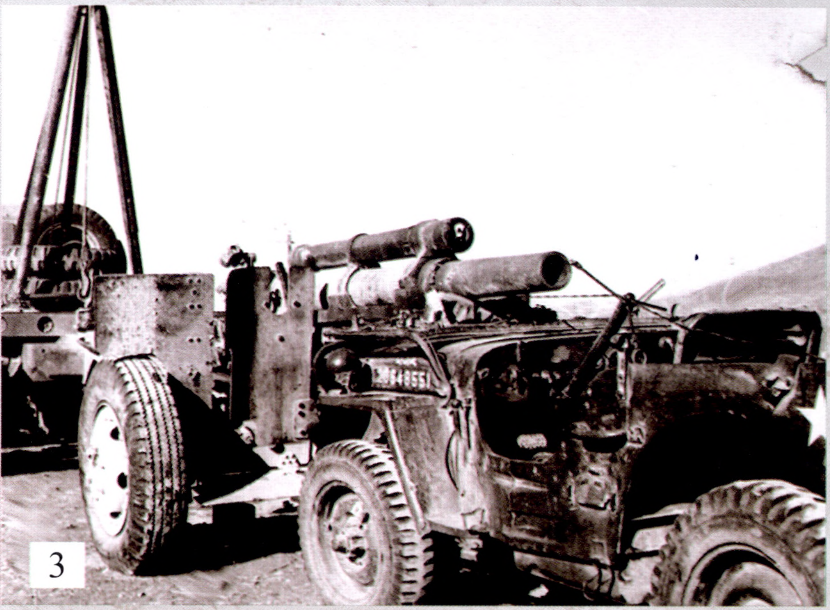
조선전쟁 3년간 미국은 실로 막대한 무장장비들을 격파, 격침, 격추, 로획당하였다.

- 격추격상로획당한 비행기 1만 2 224대
- 격파로획당한 각종 포 7 695문
- 격파로획당한 자동차 1만 3 350여대
- 격파로획당한 땅크, 장갑차 3 255대
- 격침격파당한 함선 및 선박 564척
- 로획당한 저격무기 92만 5 152정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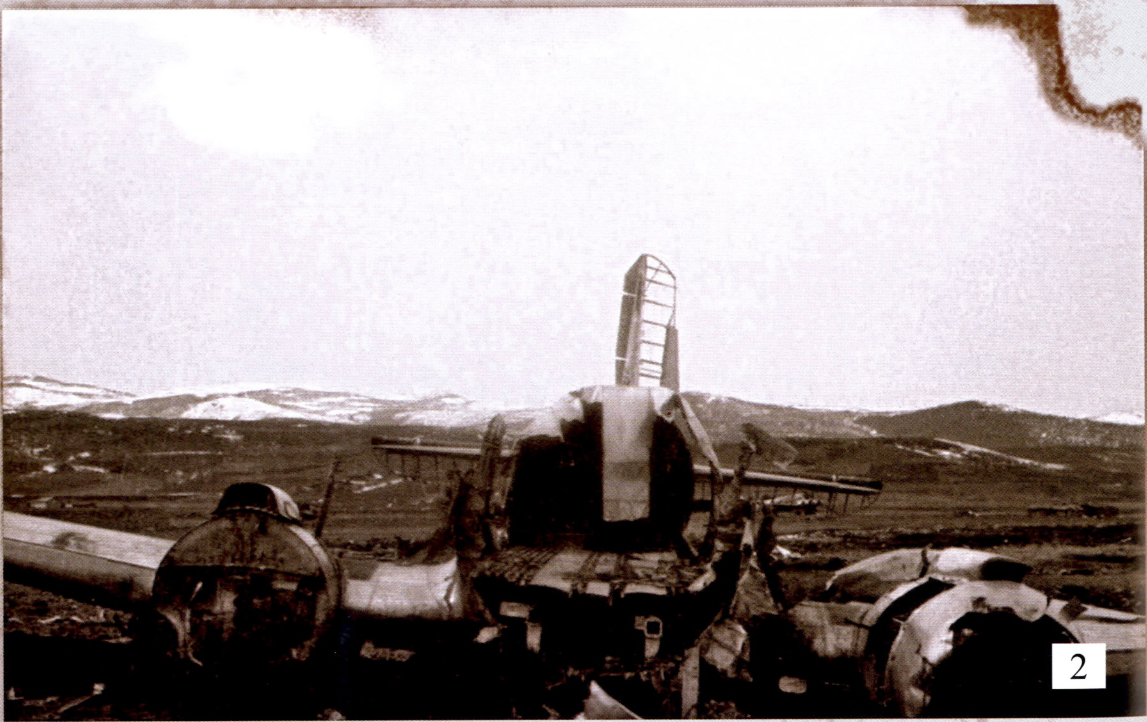
1. 허리가 꺾이운채로 내버려진 미군의 대포들

2. 행렬을 짓고 도주하다가 인민군대의 드센 타격에 형체없이 파괴된 미군의 자동차들

3. 인민군대의 위력한 화력타격에 숯덩이처럼 되여버린 미군의 자행포

4. 볼꼴없이 파괴된 미군땅크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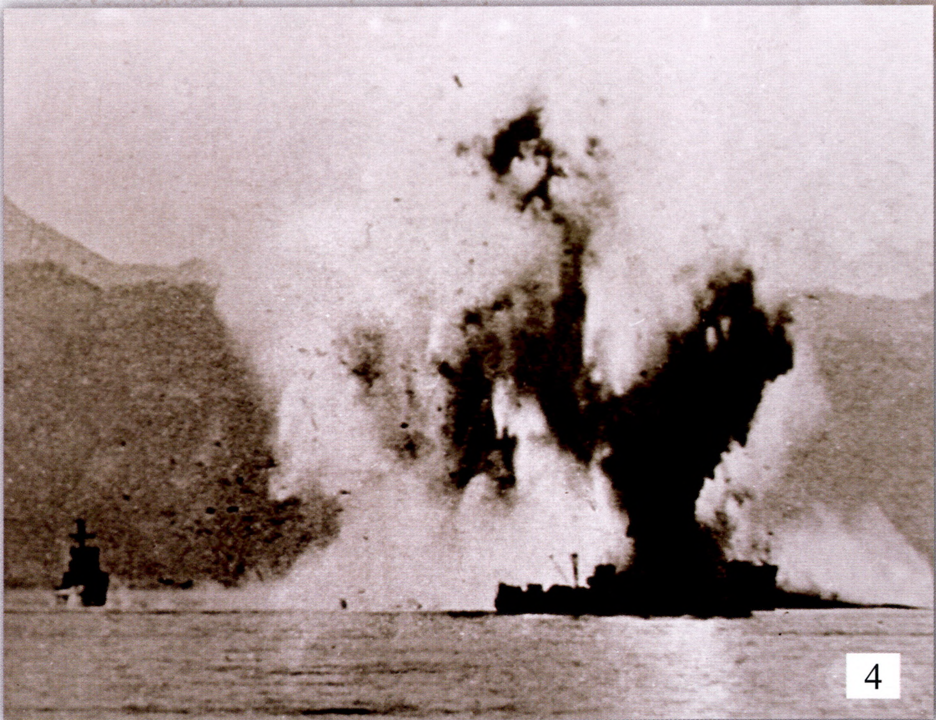


1. 되게 얻어맞아 산산 쪼각난 비행기와 함께 발에 뿌려진 미군비행사의 시체

2. 허허벌판에 나떨어진 미군비행기잔해

3. 동강난채로 시궁창에 처박힌 미군비행기잔해

4. 주문진앞바다에서 인민군해군 어뢰정에 얻어맞고 폭발하는 미 중순양함 《볼티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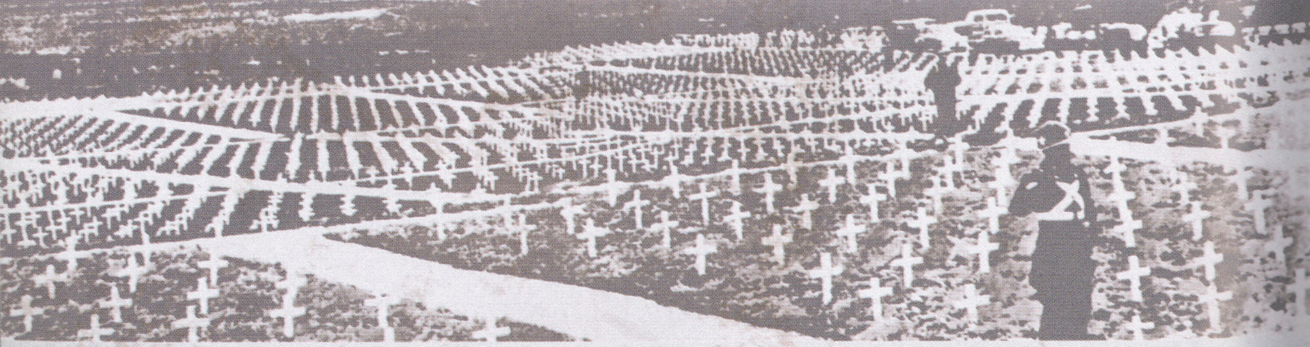


기울어져가는 형세를 어떻게 하나 되돌려세워보려고 전선 지대에까지 날아들어 모의판을 벌려놓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 (우) 와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아래)

조선전쟁에서 거덜이 날대로 거덜이 난 침략군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추세워보자고 대통령이요, 장성이요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줄줄이 《전선행》을 하였지만 기울어져가는 형세를 도저히 되돌려세울수 없었다.

인민군대의 파죽지세와 같은 드센 공격에 얼혼이 빠진 미군의 가련한 운명을 대통령도, 장성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도 결코 구원해주지 못하였다.

침략의 무리들에게는 인민군대의 정의와 복수의 섬멸타격에 죽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는 길밖에 없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미군병사들(우)과 인민군대의 격노한 타격에 머리도 못쳐들고 공포에 떨고있는 미제침략군(아래)



부산에 있는 《유엔군》의 공동묘지로 쉴새없이 시체들을 운반해오고있다.



황천객이 된 부하들의 무덤앞에 서있는 미군장교의 가련한 몰골

드디여 미제는 손을 들었다.

조선의 된매에 얻어맞고 한줌 재가 되여 공동묘지에 가느니 차라리 두손을 들고 목숨을 부지하는것이 몇푼의 딸라에 팔려온 미군에게는 현명한 판단이였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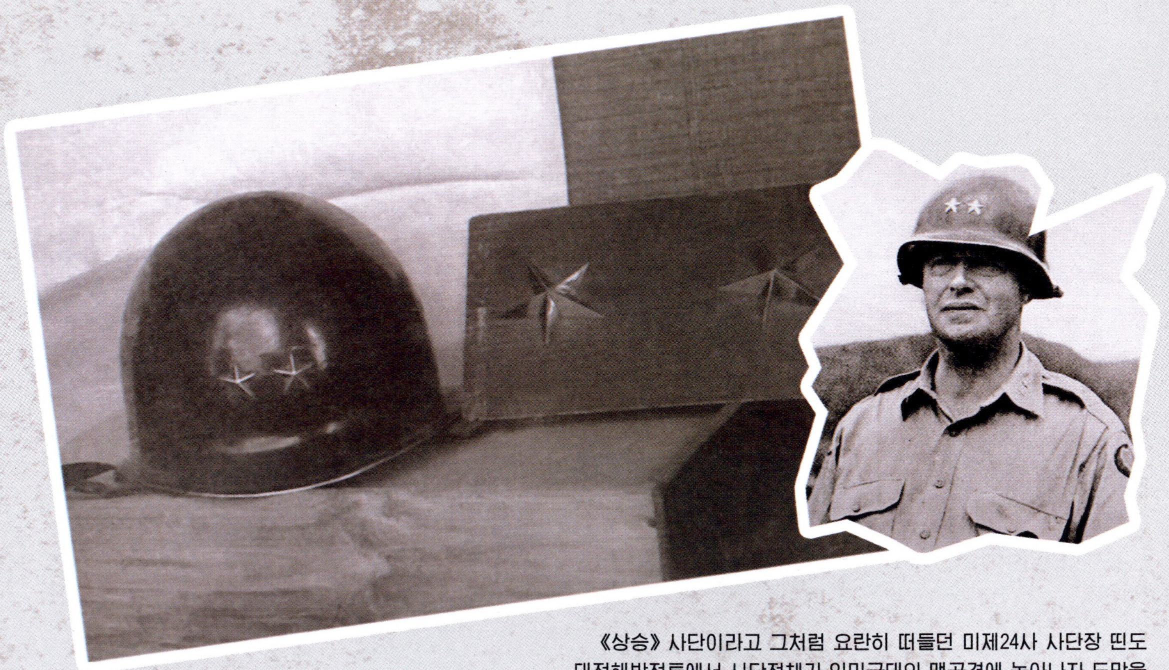
장성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두손을 들고 나섰다.

아니, 위대한 천출명장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멸적의 의지로 만장약된 영웅적조선인민의 무자비한 징벌앞에 대아메리카제국이 무릎을 꿇고 두손을 버쩍 들었다.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두손을 들고 인민군병사에게 끌려가는 미군의 비참한 몰골



《상승》 사단이라고 그처럼 요란히 떠들던 미제24사 사단장 띤도 대전해방전투에서 사단전체가 인민군대의 맹공격에 녹아나자 도망을 치다가 나어린 인민군병사에게 두손을 들고 투항하였다. 미제24사 사단장 띤 (오른쪽) 과 당시 띤이 쓰고있던 철갑모와 차표식 (왼쪽)



서울해방전투에서 투항한 미군병사들



두더지처럼 지하(우)와 움(아래)에 머리를 틀어박고 공포에 떨고있던 미군병사들이 인민군용사들에게 투항하여 두손을 들고 나오고있다.





미제를 통쾌히 타승한 승리자의 긍지높이 만세를 부르는 인민군용사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

— 전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은 패배자의 수치감을 안고 조선정전협정조인문건에 수표하는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을 하였다.》

— 전 미합참의장 오마르 브랫들리 —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

《개국이래 미국의 위신이 전세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띵에 떨어진적은 없었다.》

— 이전 미국방장관 마샬 —

《북조선군은 내가 지금까지 전장에서 겨루어본 가운데서도 가장 민첩하고 유능하며 훌륭한 군대였다.》

— 전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



《미국은 조선에서 무엇 하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문을 발로 찼으나 방안에 들어가는 일도 안되고 나오는것도 안된것이다.》

— 전 캘리포니아주둔 미군사단장 할테르슨 —

《나는 모든것이 실패라는감을 가지고있다. 나의 선임자들인 맥아더와 릿지웨이장군들도 동감이였으리라고 생각한다.》

— 전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대전만 하면 패전하기가 일쑤이니 이것은 <미군의 전통과 력사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 전 미국무장관 애치슨 —

… …







멸적으로 비발치던 탄알들이 어려오고

가슴으로 막았던 화점들이 비껴오네

축포여 너는 용사들 넋을 빛내는 별무리

축포여 너는 용사들 위훈 새기는 훈장메달

말하라 전승의 축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고

— 노래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중에서 —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우)와 체포된 무장간첩선 선원들(아래)



주체57(1968)년 1월 23일,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푸에블로》호는 공화국의 동해안에 대한 정탐활동을 벌리면서 원산앞바다 깊숙이 기여들었던 미해군 전자정보수집함이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극동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미제는 《푸에블로》호사건을 구실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 집결시키면서 《보복》과 전쟁을 떠들고 주변나라들까지도 미제의 전쟁광증에 겁을 먹고 핵전쟁이 터진다고 아우성치면서 나포한 간첩선을 돌려주라고 간청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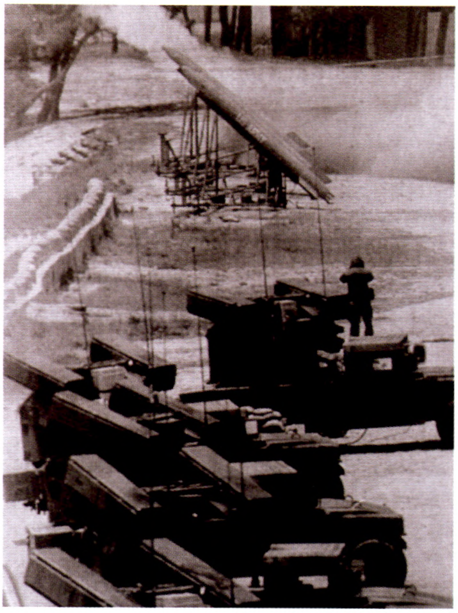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에서는 세계를 들었다놓는 폭탄선언이 터져나왔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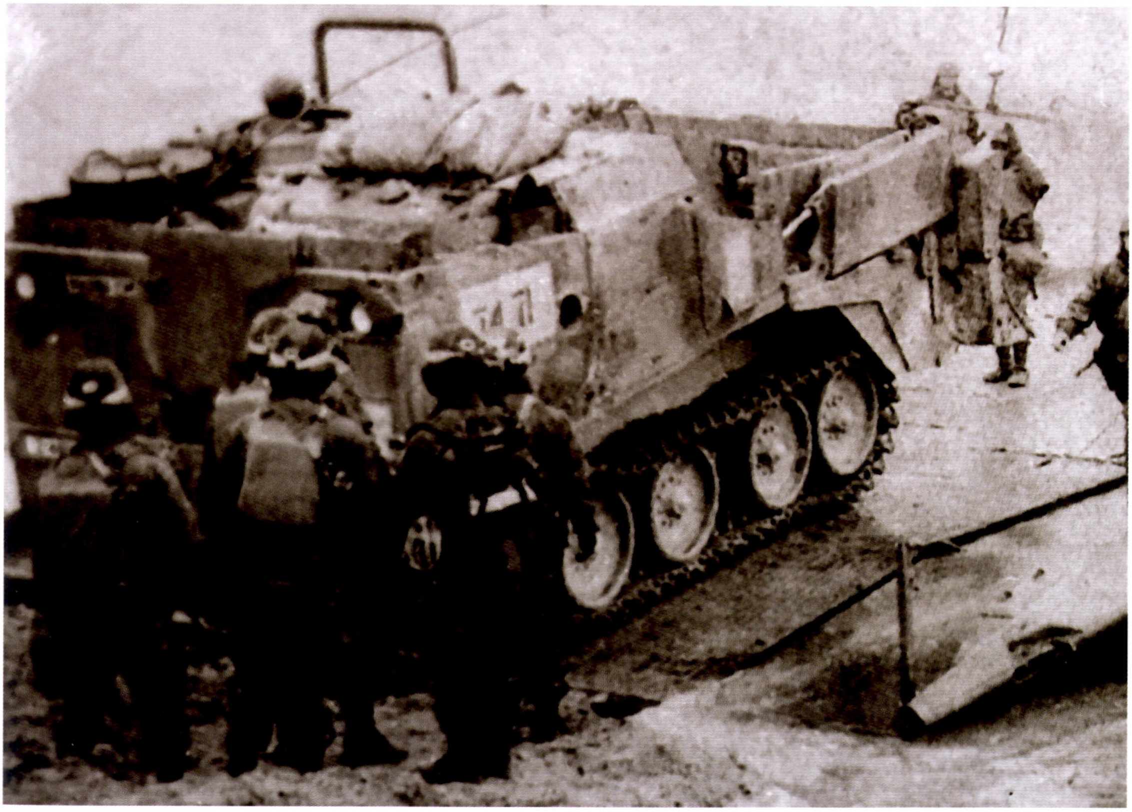
불세출의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신 긍지높은 인민, 결코 빈말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앞에 미제는 다시한번 무릎을 꿇었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령해침입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담보하는 항복서와 같은 사죄문을 조선에 바치지 않으면 안될 수치를 또다시 겪어야 하였다.





공화국에 나포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구실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제침략군(우,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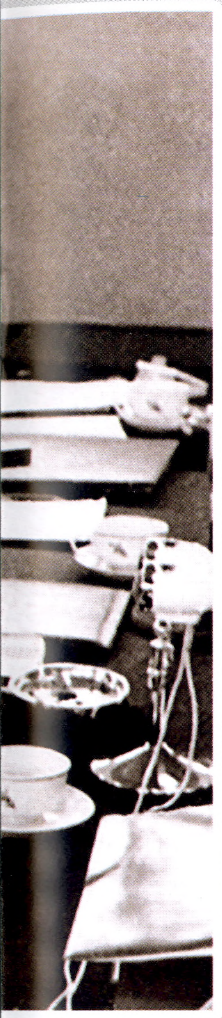


1. 미국의 사죄문을 받아내는 조선인민군 수석대표

2. 미국놈들에게서 사죄문을 받아낸 공화국에서는 체포하였던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전원 추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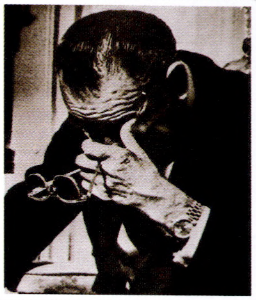
3. 항복서나 같은 사죄문에 수표하는 미국측 수석대표

4. 미국이 공화국에 가져다 바친 사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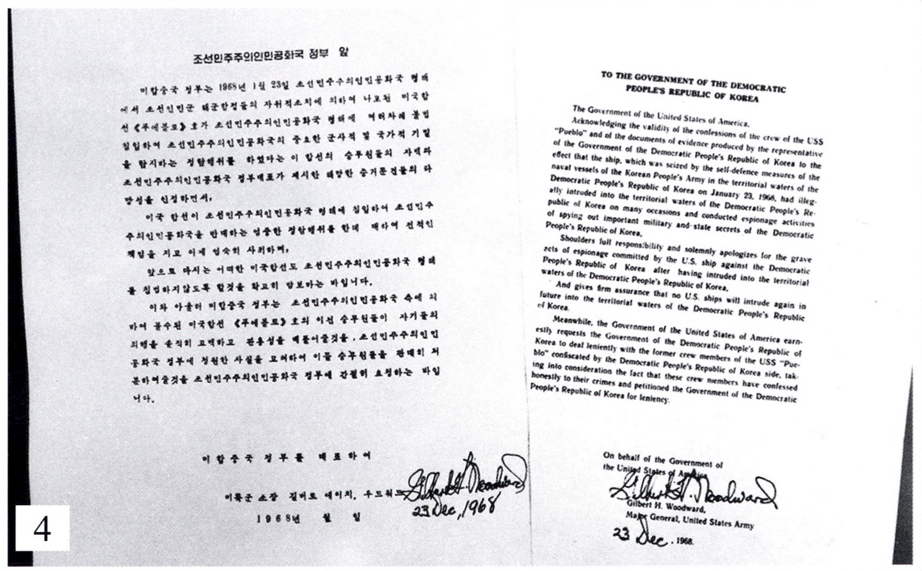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 전 미국대통령 죤슨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함선《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러차례 불법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이 함선의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가 제시한 해당한 증거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미합중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의하여 몰수된 미국함선 《푸에블로》호의 이전 승무원들이 자기들의 죄행을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성을 베풀어줄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하여줄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륙군 소장 길버트 에이치. 우드워드 Gilbert H. Woodward 23 Dec, 1968

1968년 월 일

TO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knowledging the validity of the confessions of the crew of the USS "Pueblo" and of the documents of evidence produc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effect that the ship, which was seized by the self-defence measures of the naval vessels of the Korean People's Army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January 23, 1968, had illegally intruded in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many occasions and conducted espionage activities of spying out important military and state secre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oulders full responsibility and solemnly apologizes for the grave acts of espionage committed by the U.S. ship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intruded in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gives firm assurance that no U.S. ships will intrude again in future in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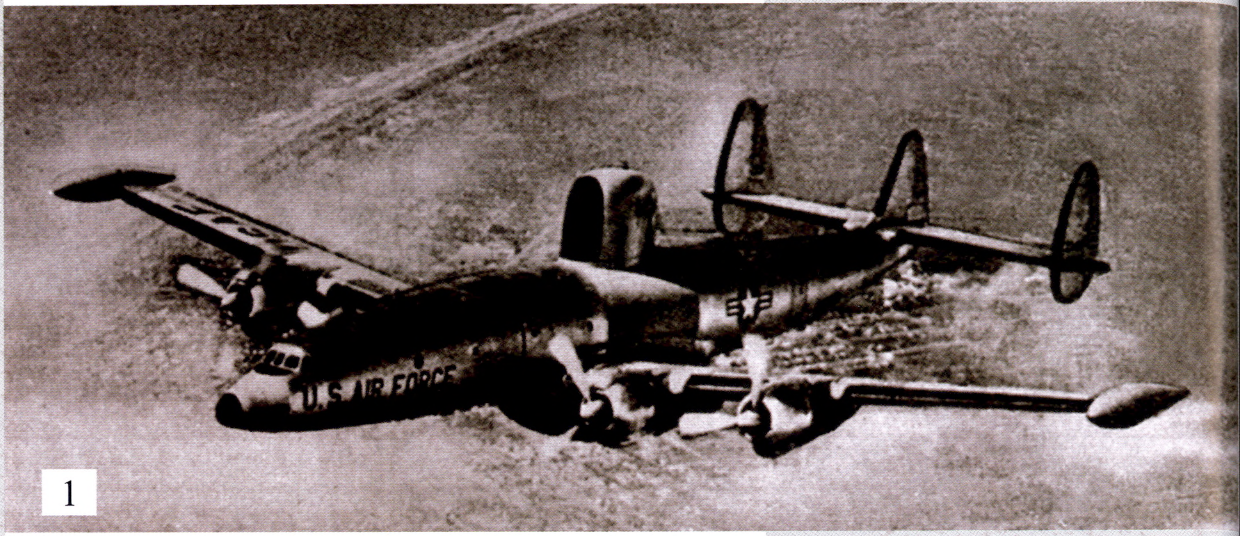
Meanwhil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arnestly request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deal leniently with the former crew members of the USS "Pueblo" confisca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d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se crew members have confessed honestly to their crimes and petitione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lenienc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ilbert H. Woodward

Gilbert H. Woodward,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23 Dec.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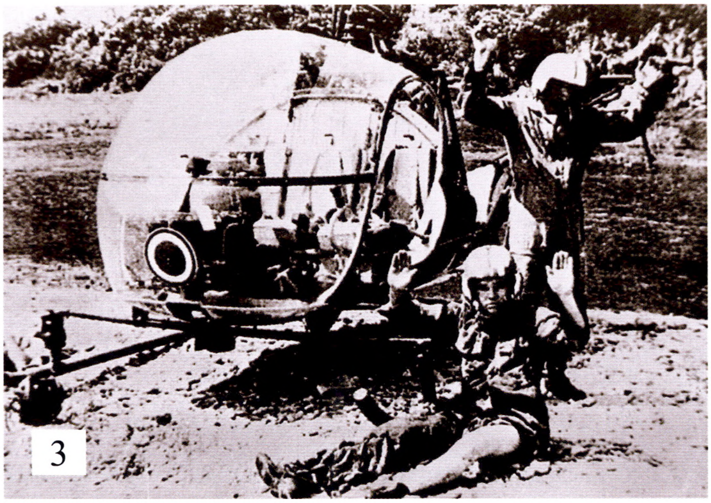
4



1



2



3

지난 조선전쟁후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이 땅에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지만 지구상의 그 어느 지역에서도 멈춤을 모르던 미제의 전쟁마차가 조선의 문턱만은 넘어서지 못하였다.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미제는 고의적으로 도발을 걸고는 그것을 구실로 광란적인 군사적소동을 일으키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지만 그때마다 된매를 얻어맞았고 조선전쟁에서의 대참패에 이어 계속되는 저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였다가 격추당한 미제대형간첩비행기 《EC－121》

2 3. 공화국령공에 기여들었다가 영웅적인민군대의 사격에 얻어맞고 나포된 미군비행사들과 정찰직승기

4 5.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였다가 영웅적인민군대에 의해 격추된 미군정찰기와 즉사한 미군비행사

6.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였다가 즉사한 미군비행사의 시체를 인도해가는 미제침략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조치를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오늘 우리 나라에는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재개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에 추종하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은 지난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무분별한 핵전쟁책동을 준엄히 규탄하며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의 부당한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반핵평화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왔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들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으며 우리를 반대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기구의 사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소유국으로서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우리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자기의 의무를 리행할 대신 구태의연하게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그대로 남겨두고있으며 보다 현대적인 핵무기와 핵장비들로 저들의 핵저장고들을 끊임없이 보강하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그 무슨 《전술핵무기철수》와 《핵부재선언》을 비롯한 《공약》들이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가 이룩되고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담보협정에 따르는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사찰은 진행되지 못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 인민의 우려는 의연히 해소되지 않고있다.

미국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시작되기전에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핵사찰이 진행되고있는 때에 재개함으로써 핵위협을 더욱 로골적으로 증대시켰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영토완정과 자주권을 존중하며 핵위협을 중지할데 대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리념과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우리를 목표로 하는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다시 벌어짐으로써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로 번져지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려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국제화》하고 우리에 대한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이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조작한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핵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우리의 주요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강행하려고 하고있다.

이 군사대상들의 사찰에 대하여 말한다면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으며 그것은 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기구의 부당한 사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의 정탐행위를 합법화해주는것으로 되며 우리의 모든 군사대상에 대한 전면적개방의 시초로 될것이다.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우리의 특수한 조건에서 군사기지를 적들에게 개방한다는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

오늘은 하나의 군사기지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래일에는 또 다른 군사기지개방을 강요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은 우리가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illegible]사찰불리행》이라는 딱지를 붙여 우리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에 대한 《집단적인 제재》를 가해보려 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짜놓은 미국의 각본이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이러한 음모를 저지시키지 못하면 온 민족을 대결과 전쟁에로 몰아넣고 대국들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공정성과 엄정중립에 기초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리행을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자세에서 리탈함으로써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가담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수 없다.

기구 서기국 일부 계층들이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우리의 사찰요구는 무시하면서도 미국이 강요하는 우리의 군사기지사찰에 그처럼 집요하게 나서고있는것은 명백히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의 편역을 든 행위이다.

더우기 일본과 남조선의 핵무장화책동은 묵인하면서 우리에게는 있지도 않은 《핵무기개발》을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있는 기구의 2중기준적용에 대하여 우리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들어간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려는것이였지 결코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누구의 롱락물로 내맡기자는것이 아니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분별없는 책동으로 하여 우리가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 대한 핵위협은 더욱 증대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파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과 우리의 적대세력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핵국가인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데 악용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성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하에서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 의무를 더이상 리행할수 없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포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안의 일부 계층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립장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랭전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조종하여 비핵국가들을 모해압살하려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적대세력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이 《특별사찰》이나 그 어떤 《조치》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강도적론리나 강권행위가 통할수 없다.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정치사상적공세》도 그 무슨 《봉쇄》도 우리 인민의 진로를 가로막을수 없다.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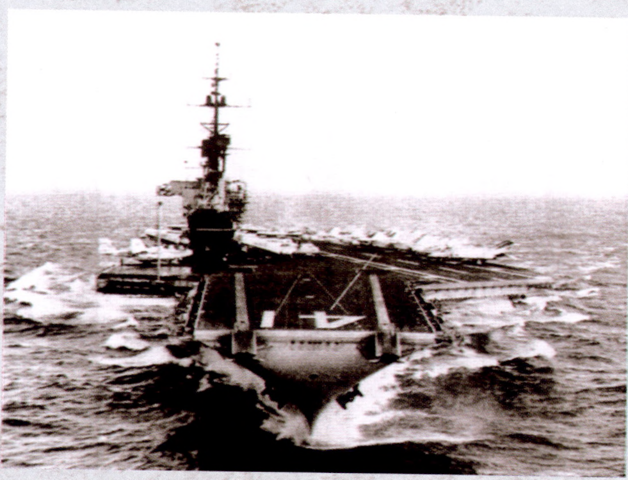
우리는 이 기회에 국제적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많은 성원국들과 여러 관리리사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에 지지와 동정을 표시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우리가 미국이 강요한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의 부당한 《결의》를 반대배격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발전도상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평화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우리 공화국정부의 자위적조치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한다.

1993년 3월 12일 평양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제침략군(왼쪽, 오른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과 관련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이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서한은 다음과 같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１９９０년대에 들어와 공화국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은 세력구도에 있어서 상상밖의 대결이였다.

미국은 공화국의 평화적핵건설을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불순계층을 부추겨 조선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한편 핵폭격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해나섰다.

남조선에 침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반공화국《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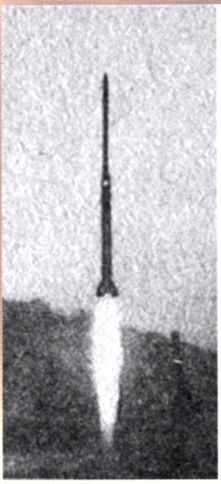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했던 그때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며 온갖 도전에는 박멸로 대답한다는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미제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련이어 안기시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준전시상태선포!

미국은 전률하였다.

또다시 회담탁에 끌려나와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미국력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대통령의 담보서한까지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조 선 중 앙 통 신 사 보 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운반로케트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운반로케트는 주체87(1998)년 8월 31일 12시 07분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86도 방향으로 발사되여 4분 53초만인 12시 11분 53초에 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운반로케트는 3계단으로 되여있다.

1계단은 발사후 95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km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9도 40분의 조선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할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646km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후 27초만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위성은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218.82km, 제일 먼 거리 6,978.2km의 타원궤도를 따라 돌고있으며 주기는 165분 6초이다.

위성에는 필요한 측정기재들이 설치되여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계산토대를 확정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률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27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있다.

이번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단 한번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주체87(1998)년 9월 4일 평 양

우리가 위성보유국으로 되는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담화

공화국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자료(우)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이라고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거망동을 규탄한 공화국의 외교부(당시) 대변인담화자료(아래)

주체87(1998)년 8월 31일 공화국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광명성-2》호발사에서도 완전성공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였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시험으로 둔갑시키고 있지도 않는 《북조선핵개발》설을 또다시 요란하게 떠들면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것을 공약한 조미기본합의문을 비롯한 이전의 조미사이의 공식문건들을 전면파기해버렸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남조선에 핵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조선인민의 머리우에 시시각각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몰려들고있던 준엄한 그 시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선에서 전선으로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을 년대와 년대를 넘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만대로 빛내여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높이 《광명성2호》를 쏴올린 민족사적인 경사에 접하여

공화국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연장하며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무분별하게 날뛰는 이상 자위를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천명한 외무성성명(왼쪽)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쏴올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토로한 《로동신문》에 실린 정론자료(오른쪽)

《조선전쟁만은 자신이 없다.

그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전법상특징을 전혀 모르고있기때문이며 조선사람들이 자기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고 북조선사람들의 미국증오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 태여날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미국놈 죽이라는 말을 한시도 떼놓지 않는다. 어린이들까지 나쁜짓을 하는 사람을 미국놈이라고 하고 나쁜 물건을 보면 덮어놓고 미국놈의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런 민족과 싸워 이긴다는것은 헐치 않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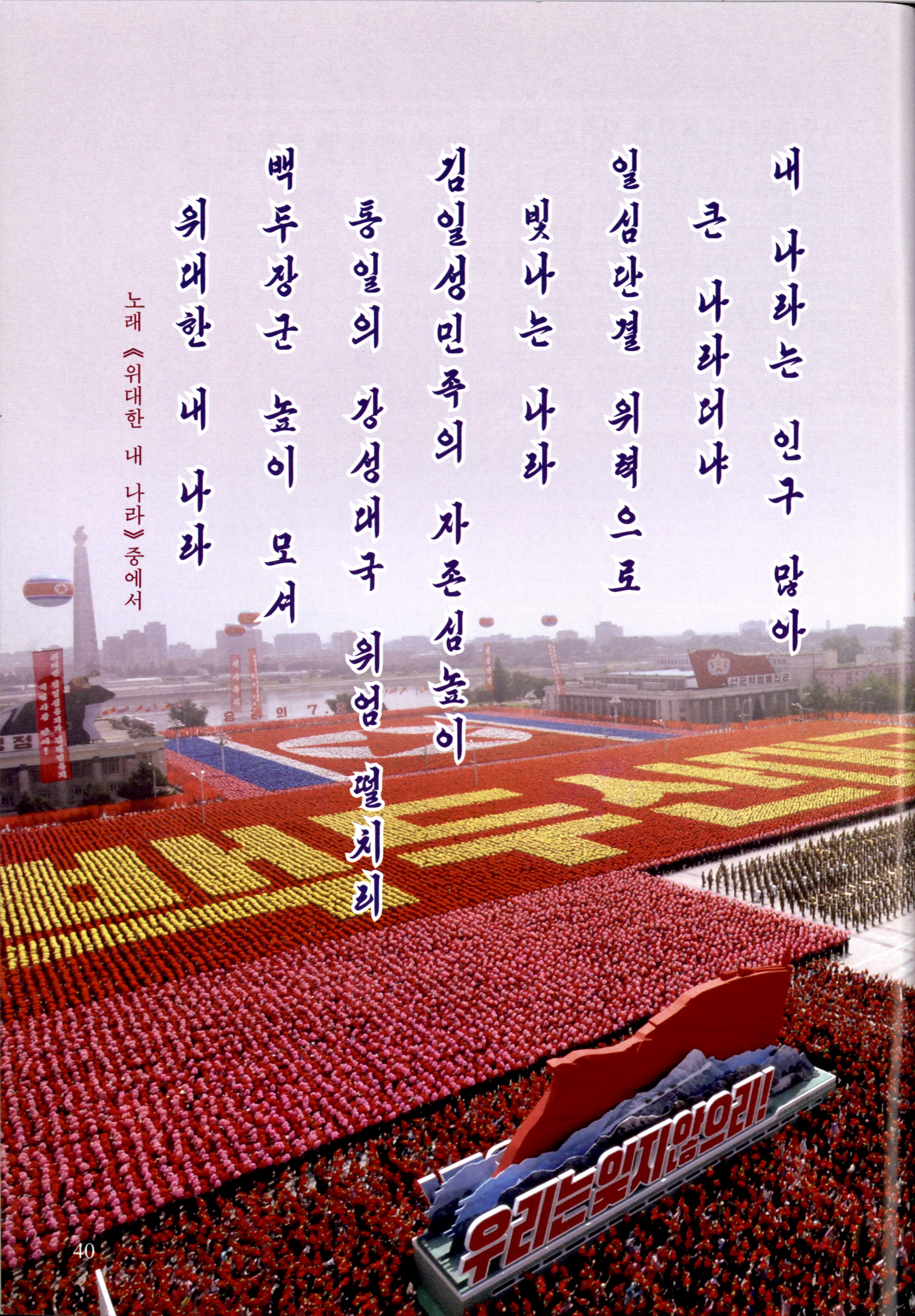
— 전 미국무장관 포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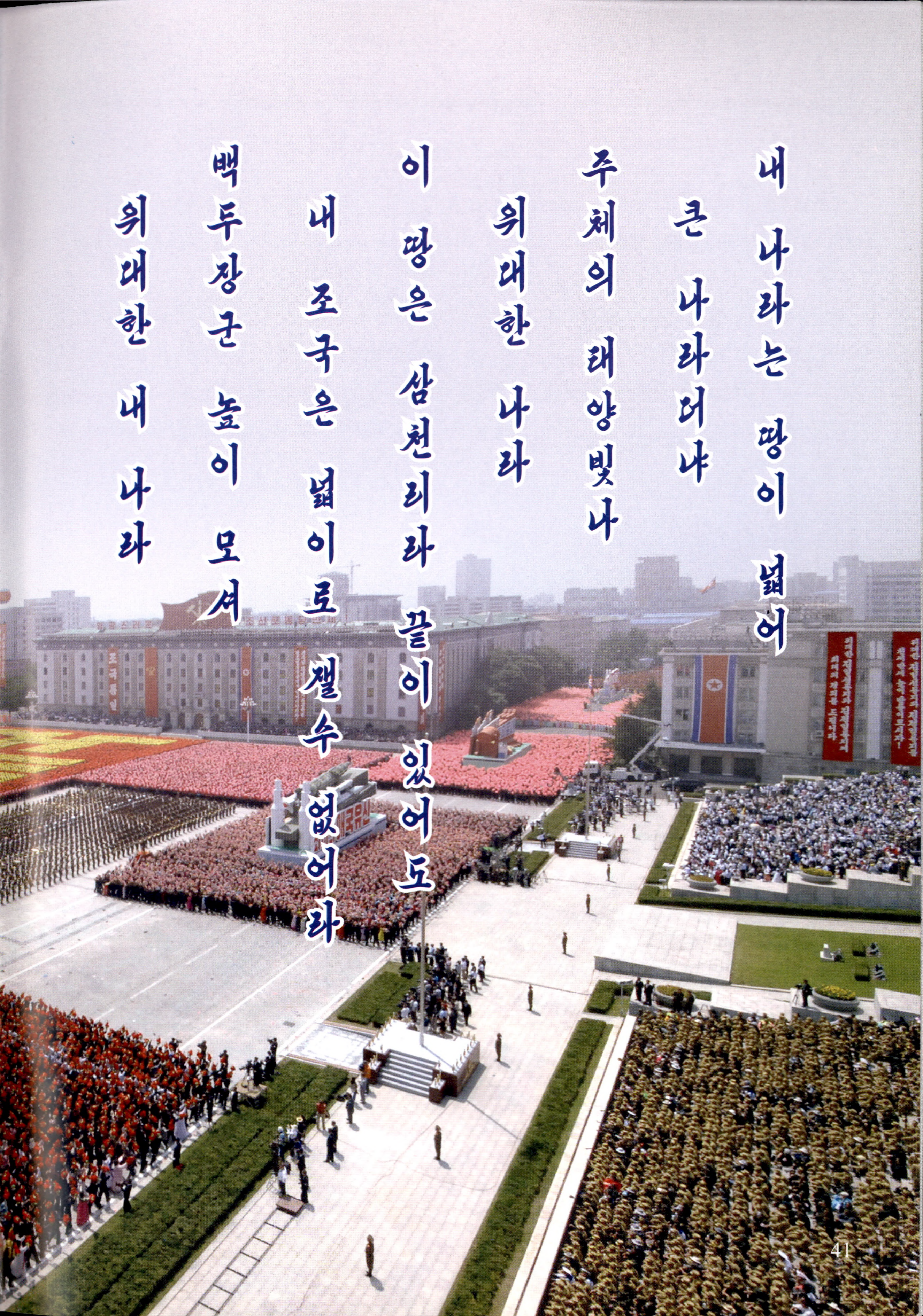
《이제 미국의 심장부에 무서운 핵폭탄이나 탄도탄을 날려보낼 유일한 적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그마한 반도의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것이다.》

— 미국두뇌집단 헤리티지재단의 국가안전담당 연구원 리차드피 —

내 나라는 인구 많아
큰 나라더냐
일심단결 위력으로
빛나는 나라
김일성민족의 자존심 높이
통일의 강성대국 위엄 떨치리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

노래 《위대한 내 나라》중에서





내 나라는 땅이 넓어
큰 나라더냐
주체의 태양빛나
위대한 나라
이 땅은 삼천리라 끝이 있어도
내 조국은 넓이로 잴수 없어라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

지나온 조미대결사에 기록된 공화국의 승리의 전통은 오늘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백두산악과도 같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숨돌릴새없이 다불러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끗끗이 계승되고있다.

인민군대가 그 어떤 대적도 일격에 죽탕쳐버릴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의 성공을 비롯하여 일단 결심하면 침략의 크고작은 모든 본거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수 있는 강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다 갖춘 무진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빛나는 승리이다.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공화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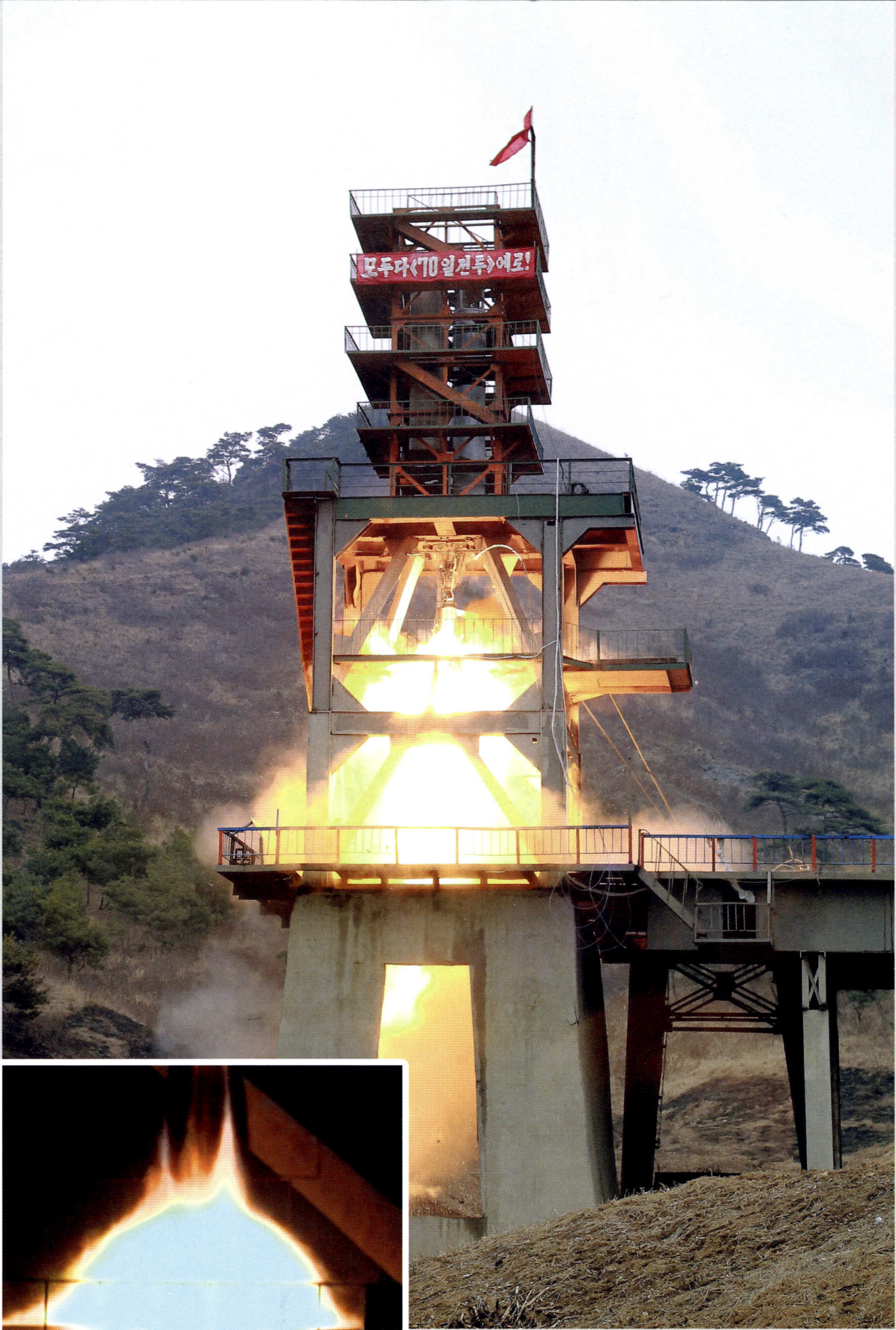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서는 조선인민군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의 완전성공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의 한 장면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의 성공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의 한 장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의 한 장면

70여년에 이르는 조미대결사의 마지막페지를 쓸 때는 왔다.

미국에게 종국적멸망을!

격노한 백두산총대가 서리발친다.

지금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온 미국땅을 과녁으로 삼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은 항







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서 최후결전의 명령만 기다리고있다.

미국은 오산하지 말라.

지난 세기 50년대에 보병총만으로도 원자탄을 가진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공화국이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불패의 강국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날 공화국의 군력은 미국땅덩어리들까지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만약 적들이 어리석게도 신성한 공화국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하늘끝까지 치닿고있는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를 총폭발시켜 영웅조선의 본때를 다시한번 가슴후련하게 보여주고 민족의 최대숙원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다.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승리는 영원한 백두산대국의 억년전통이다!



조미대결사의 법칙적인 전통

편집	김화명
글	권지혜
인쇄	주체105(2016)년 4월 5일
발행	주체105(2016)년 4월 7일
낸곳	평양출판사

ㄱ－1272ㄷ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조선의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